

밀가루 신자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조용의 사도요한 / 오송성당

우리 집은 평안남도에서 6.25 전쟁 중 1.4 후퇴 때에 국군을 따라 월남하신 아버님께서 오송성당 모태가 된 벌미공소 인근에 터를 잡고 살았다. 어린 시절 춥고 배고픈 기억 외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었다. 좀 자라서 1965년에(저의 기억) 오송성당에 미국인 신부님께서 성당을 짓고 선교에 심혈을 기울일 때 마을엔 매일 수녀님이 오셨던 걸로 기억된다. 수녀님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곤 하셨다. 우리 집에도 몇 번 오셨는데 부모님께서 안 계실 때 오셔서 조금 무섭기도 하였다. 검은 수녀복과 두건을 쓴 모습이 생소하여 그냥 무서웠던 것 같다.

그 무렵 성당에서 구제 의류와 밀가루 등을 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곤 하였는데 우리 집에도 밀가루와 구제 의류 몇 가지를 가져오셨다. 그런데 옷은 정말 너무 컸다. 아마도 신부님께서 미국에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 비해 우리들 체격이 많이 작아서 저희에겐 상당히 컸던 것 같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식구들을 모아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받아 놓고 성당에 가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 우리도 성당에 다녀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성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지금 성당 식당에서 교리 공부를 하였는데 그렇게 무서웠던 수녀님이 한없이 다정하고 친근하게 대해 주셨다. 그때엔 어른들은 못 배운 분들이 많아 글도 못 읽는 분들이 있어서 영세하는데 약간은 관대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엄격하였던 것 같다. 교리문답을 통과해야만 영세할 수 있었다. 낡은 교리문답 책이 다 닳도록 열심히 하여 눈을 감고도 다 외울 수 있었다. 드디어 신부님 앞에서 시험 보는 날(참고 한다고 했던 것 같다.) 처음으로 신부님 그것도 미국 신부님 앞에 앉았는데 지금도 제 기억엔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모른다. 그저 무척 무섭기만 했다. 그 무렵 저 같은 촌놈에겐 서양 사람을 마주할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어눌한 우리 말과 강한 억양이 화내는 것 같아서 그냥 무섭기만 하였다. 나와서 영영 온 것밖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

밖에서 기다리던 수녀님께서 꼭 안아 주시며 걱정마라 수녀님이 다 알고 있으니 잘 말씀드려서 영세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달랬다. 하지만 결국 영세받지 못하고 재수하여 다음해에 영세를 받았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때에는 주일만 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주일도 새벽 미사에 주로 갔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품팔이를 하셔야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새벽 미사를 주로 갔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문제가 생겼다. 교무금을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워낙 가난하여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마을에 성당 일에 열심히 하는 아주머니가(요즘 생각해 보니 반장님이셨을 듯) 자주 찾아오시어 교무금을 왜 안내냐고 부모님을 다그치셨다. 아버님께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 같았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경우에 밝게 사셨기에 상심이 크셨을 것 같았다.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와 다그치자 어느 날 저녁에 등잔불 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 기도를 바친 후 아버지께서 가족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무금을 못 내고 성당에 다녔는데 살기 어려워져 도저히 지금은 교무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 훗날 교무금 낼 수 있을 때 다시 다니자고 하시곤 한참 동안 멍하니 계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버님은 당신께선 이 가난이 당신 책임인 양 무한한 자책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성당에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한두 달 지나서 성당에 가고 싶어서 마을에 또래들을 따라 성당엘 가게 되었다. 용기도 없고 숫기도 없어 고백성사를 못하니 성체도 모시지 못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혼자인데다 중학교에 가면서 서서히 나가지 않게 되었다. 중 3 때 이웃에 같은 마을 저편에 살던 개신교 전도사 한 분이 이사 왔는데 둘째 아들이 또래였다. 진학을 안 시켜준다 하여 마음이 방황할 때인데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친구 따라 교회에를 다녔다. 2년 가까이 다니는데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침과 이웃에서 보는 삶이 너무 달라 그만두었다.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이력서 등에 쓰는 종교란에는 항상 천주교로 썼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저를 꼭 다시 부르시려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나 2001년 12월에 목과 코에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는데 곧바로 아버님께서 2002년 1월에 식도암이 발견되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되어 손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우리가 해 드릴 게 없어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수시니 병원에 일단 입원시켜 드렸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웃에 신앙심이 깊은 신자 세실리아 어르신이 있었는데 신부님을 청해서 병자성사 드리면 어떻겠냐고 하시었다. 저도 의지할 곳은 하느님밖에 없겠다 생각되어 어떻게 하면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는지 여쭙었다.

어려서 냉담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기에 전적으로 이웃의 세실리아 어르신께 모든 걸 상의하고서는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아버지 제가 해 드릴 게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웃집 세실리아 어르신이 그러시는데 신부님 모셔서 병자성사 받으시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제 생각도 하느님 밖에는 의지하고 믿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부님 모시고 올 테니 병자성사 하실래요?”

하고 여쭙자 아버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제까지 안 다니다가 죽을 때가 되니 매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갚고 기도하며 살 테니 병자성사 받으실래요.”

하니까

“네가 정말 그래 줄래.”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모시고 세실리아 어르신과 함께 병자성사를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저희 가정은 어머니와 집사람과 함께 주일마다 즐겁게 성당에 나갔습니다. 세실리아 어르신이 성사 보고 성체 영하면 된다고 하시어 어머니와 고해성사 하고 새롭게 신앙을 이어 갔습니다.

4월 22일 오후 11시 20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에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사 지내 달라고 하셔서 저녁에 집으로 산소호흡기 착용하시고 구급차 부르려 하니 아버지께서 제 차 타고 가시고 싶다 하시어 제가 모시고 집으로 오셨는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토록 오시고 싶으시던 집인데 하룻밤이라도 편히 지내고 가시지 뭐가 그리 바쁘신지 퇴원하여 4시간여 만에 선종하신 겁니다.

이웃 세실리아 어르신께 알리고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부고 내기도 너무 바빴습니다. 전통에 따라 3일장으로 해야 했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하고 40분 만에 하루가 지났으니깐요. 집이 좁아 목수인 사촌 동생이 밤새 조문 자리를 만들어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10시쯤 되어 신부님, 수녀님과 교우들이 연도를 시작하셨는데 저녁9시 넘어서까지 연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위하여 해주신 연도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장례미사로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 장례 절차가 저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정성이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성당에 장례 있으면 한 번 이상 “꼭” 연도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집사람을 예비자 등록하고 있는데 신부님께서 관면혼배 했냐고 물으시더니 안 했다고 하니 혼인조당이라 하시더니 당장 관면혼배 해야 한다고 하시어 반지 준비하여 깨끗이 옷 입고 오라 하시어 다음날 성당 옆에 사시는 교우 부부를 증인으로 관면혼을 마쳤습니다. 조당 상태에서 성체를 영했으니 대죄를 지었지만 몰라서 지은 죄라 사하여 주시리라 믿고 더 조심하여 교리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주일마다 성당엔 오는데 같은 반 교우들을 저의 9인승 차에 열 명 이상 빼곡히 태우고 다녔습니다. 저희 마을엔 버스도 다니지 않아 2킬로 넘는 길을 걸어 다니시다가 제가 돌아와 모시고 다니니 모두 저의 회두를 반갑고 고맙게 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원들 빼고는 인사도 잘 안 하니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갔다만 하기가 그래서 물어 물어 반석회에 가입하여 봉사하니 미사 후에 반원들 태워다 주고 성당에 다시 와 족구도 하고 다과도 하며 친교의 시간도 가지니 참 좋았습니다.

집사람이 로사로 세례를 받고 그해에 견진이 있어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3~4년 뒤에 미사 전에 그날 독서자가 오지 않았다고 수녀님께서 저에게 독서를 하라고 하시는데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회중 앞에 서서 해 본 일도 없었지만 냉담 중에 지은 모든 죄가 머릿속을 채우며 제대 위에 올라가면 하느님의 진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못한다고 우기자 미사 시작시간이 다 되어 신부님께서 오시어 올라가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니 제대에 오르시어 곧바로 미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잔뜩 긴장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수녀님께서 지금 올라가면 된다고 하셔서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미사가 끝날 때까지 무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 수녀님이 오시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주일 독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독서자 중에 제일 잘했다고 하시면서 물론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하셨겠지만. 하여튼 그 후로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독서로 시작하여 전례 해설도 하며 저의 신앙은 더 커져갔습니다. 전례부장도 하고 연례회도 열심히 하며 하느님 부르시기 전에 교회에 봉사자로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밀가루 신자로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떠나 있다 돌아와 2년 과정 선교학교도 수료하고 가장 친한 친구 한가정은 꼭 전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하였더니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들어 주시어 세례받도록 인도하고 대부까지 셧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더욱 봉사하여 냉담 중에 지은 죄 보속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젠 저의 고향 마을이 의료과학 단지에 편입되어 반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새로 이사한 반에서 만난 반원들과 잘 어우러져 제가 와서 반 모임이 활성화되었다고 모든 반원들이 절 좋아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 없이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밀가루 신자로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떠나 방황하다가 돌아와 주님께 봉사하며 살게 해주심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제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절 올바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 : 그 무렵 세례받은 신자 중에 우리 같은 신자들을 밀가루 신자라 하였다.)